

## 도박산업 파이팅



정보표준과 노용수

2002년 12월부터 시작된 로또 복권의 열풍이 석달도 안된채 대한민국 반도 전체를 휘감고 있는 느낌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광풍에 휩쓸려 그야말로 단 한번에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인생역전의 대박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항간에는 현 정권은 카지노(도박)로 시작해서 로또로 막을 내렸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듯이, 정부가 허가한 도박 산업은 그야말로 승승장구 국토전체를 도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앞다퉈 경마장, 카지노 등을 유치하려 안달이 난 상태이다

그러나 도박산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판매수익금 중 정부의 몫으로 사회에 그늘진 곳과 보살피증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고 국민적 욕구도 충족시켜 준다면 그야말로 일거양득일진데 우리의 실정은 그렇지 못함에 심각함이 있는 것 같다

원래 도박산업은 레저와 도박이라는 야누스적 두 얼굴을 지닌다 할 수 있다. 도박산업의 성장은 여가나 오락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과거 우리가 앞만 내다보며 달려온 산업사회에서

는 놀이문화를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본 반면 요즈음은 일보다는 삶의 질 향상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사행성 오락산업 즉, 도박산업도 우리들 삶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으로 사료된다.

더구나 우리는 IMF라는 청천병력을 맞이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애환에 휩싸였던가!!!

그래서 더더욱 한탕주의식 사고방식인 도박에 대한 애착이 강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우리도 도박산업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야 사행심을 덜 부추기고 건전한 도박산업이 될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야만 할 것이다.

외국처럼 도박산업을 자율과 시장논리에 맡겨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의 무서움을 몸소 깨닫게 하고 나아가 '즐기는 대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

아니면 규제조치를 통해 정부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여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선택일 것이다.

앞의 방법은 자기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회'의 방식이나 뒤의 것은 '미성숙사회'의 방식이다

한편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은 이 두가지를 모두 취하고자 하는 멀티 방식이라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율배반적인 편이 강하다.

그 사유로는 도박산업을 계속 허가해 주면서 도박의 세부내용은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그 예가 경마장과 경륜장으로 10만원과 5만원의 페팅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정부가 계도하고 있는 바, 이 얼마나 국민의 감정을 억제해 주는 병주고 약주는 자상한 정부인가???

하지만 이러한 상한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우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여론에 의해 수시로 제한조건을 만드는 등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도박산업을 과연 우리가 도박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새로운 도박산업의 확대, 외압에 의한 규제와 양산 이것이 우리나라 도박산업의 현 주소이다.

이를 분석하자면 도박산업의 열매가 너무 달콤해 포기할 수는 없고 시장논리에 맡기자니 부작용과 여론이 겁나는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인 선악과와 같은 논리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유도해야만 할 때이다. 모든 경제활동이 그렇듯이 도박산업도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에 맡겨야만 할 것이다.

도박산업의 시장논리란 '도박은 자기관단의 책임'이라는 세계 공통적인 게임의 법칙이지만 우리 정서엔 아직 낯설은 편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규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 규제를 빨리 깨는 운영만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정부는 두 가지 방법중 한가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다달았다.

도박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모든 국내의 도박산업을 중단시키든지, 아니면 시장원리에 맡겨 운영되도록 하든지... ..

이런 말이 생각난다.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도박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말고 내버려 두라. 당첨되기란 한낱 허황된 꿈이란걸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깨닫게 내버려 두는 것이 정부에서 국민이 잘못될까 두려워 제도에 제재를 가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훨씬 나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가 통제를 해소하면 국민에겐 더 좋아지는 사례가 있었다. 그 좋은 예가 통행금지 해제일 것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은 지난번 월드컵 때의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았듯이 세계 어느나라의 국민들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또한 규제만이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정책입안자들의 근시안적 행정에 우리 모두 보란듯이 성숙한 국민의식을 보일때가... ..

